

Christ the Coming King

CD 730 RA
Spring, 08

재림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여 천년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 이후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복음이다. 심슨(A.B. Simpson)의 재림론에 따르면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영혼 구원인 중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성결함을 입어야 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는 신유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였다. 즉, 재림의 복음이야 말로 사중 복음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겠다. 심슨은 세계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켜(hasten His return) 이 세상에 천년왕국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선교의 긴급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심슨은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리라고 믿었으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세계 선교 사명을 매우 강조하였고, 심슨의 세계선교를 위한 도전적인 설교는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였다. 이렇듯 재림의 복음 세계 선교와 그 목적론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림의 복음을 강조한다면, 이 강조점이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의 목적은 주의 재림을 촉진 시키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결국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징조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은 크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의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C&MA 교단에서는 ‘전천년 재림설’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전천년 재림설’이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재림 하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며 부활한 성도들도 함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천년 재림설에는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재림 직전: 천년왕국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환난 동안에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 하게 되며,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천년설의 주장하는 바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해서 세상에 죄악이 사라지고 의롭고 행복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징조 중 경제적 혼란, 사상적 혼란, 국제적 혼란과 전쟁, 도덕적 부패, 불신앙,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의 발호 등 인간의 심령 상태는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은 관용하여 소돔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 멸망을 능가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진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주장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건설 하실 ‘천년왕국’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인데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 사단이 없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므로 무죄시대가 된다는 내용이다. 둘째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기이다.(계 20:4-7)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구속받는 성도들은 죽은자나 산자가 다 주의 재림때에 혹은 부활 혹은 영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혼인 잔치를 치른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모두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천년왕국 시대에는 불신자는 부활하지 못하고 구속 받은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는 왕도 되고 시민도 된다. 셋째로, 천년 말기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계 20:7-11). 천년이 차면 잠간동안 마귀 사단을 무저갱에서 놓아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에 명시가 없으니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으나 무궁세계에 들어갈 성도들을 시련시키고 잠깐의 고통을 맛보아 무궁 세계의 감사와

영광을 영원불변 보존키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백보좌 심판(계 20:11-15)이 있다. 인간의 마지막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시행된다. 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시고 천지창조 이후에 출생한 전 인류는 생명책과 행위책(계 20:12)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그 때에는 불신자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살아나(계 20:13)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궁 세계로, 행위책에 기록된 불신자는 무저갱 불못에 던져 영원 형벌을 받게 된다.

전천년 재림설에 대한 심슨 박사는 후천년주의자였으나, 1870년 말부터 전천년 주의자로 입장을 바꾸었다. 심슨 박사의 사역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적인 재림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계 복음화와 관련, 세계 선교에 대한 과업의 완수가 주님 재림에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전천년 재림설에 대한 C&MA 교단은 신조 11항에서 교리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믿으며, 그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가시적이며, 전천년적이다.”

전천년재림설을 믿는 우리는 그 전에 7년 대환난을 다룰 수가 있는데, 환난전 휴거설에 근거한 사건 전개를 보면 7년 대환난 직전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 상급 받는 심판을 말한다. 그리고 7년 대환난중에는 적 그리스도의 지배와 이스라엘의 수난과 순교가 있으며 7년 대환난의 끝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환난중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작함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하며 천년왕국의 끝에는 세번째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환난전 휴거설에는 공중 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공중 재림은 대 환난전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다(살전 5:9; 1:10).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은, 대 환난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휴거에 따른 사건들 가운데 한가지 나타나는 일들은 ‘세 가지 부활’이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시 대환난 직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하며,

둘째로는, 대환난 직후 환난 동안에 죽은 성도들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끝에 불신자들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시고 천지창조 이후에 출생한 전 인류는 생명책과 행위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계 20:12).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마 24:36,42).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실 시기가 임박한 것은 징조를 보여 주셔서 알게 하셨다. 심슨(A.B. Simpson) 박는 선교와 재림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고, 모든 민족 그룹에게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전파되면 바로 그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재림의 징조는 경제의 혼란(약 5:1-9, 딤후 3:2, 마 24:8, 계 7:6)과, 사상적 혼란(계 6:1-8), 도덕적 부패 타락(마 24: , 딤후 3:1-9), 불신앙의 시대(눅 18:8), 거짓선지 적 그리스도의 횡행(마 24: , 막 13:21-22, 눅 17:23),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온역, 공해의 시대가 될 때 재림의 징조가 있는것이라 증거하고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점은, 성경의 말씀을 뒷바침이라도 하듯 이런 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온역으로 인해 이름도 모르는 전염병이 온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또한 공해로 인한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듯,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한 주의 재림으로 완성됨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도록 선교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시, 신부로서 맞이할 사람들을 불러모아 제자화 시켜야 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한다.(전천년설 주장에 대한 변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재림의 복음은 사중복음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된다. 사중 복음을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면 모두가 선교하는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성결은 선교의 원동력이며, 신유는

선교의 방법이라면, 재림은 선교의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으로서 성결함으로 준비된 헌신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받아 선교지로 파송되며, 그리스도의 신유의 복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의 세계를 물리치며, 선교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의 제자를 삼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하며, 각 지역 선교사들과 교단, 적극적인 선교 협력과 연합이 필요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교 후보자를 양성하는 일이 요구되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 할 준비를 할 뿐 만 아니라 심슨 박사가 주장했던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데 전심전력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1) 아무런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맞이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야하며, 2) 작은일에 불충하다가 영원한 상급에 참여치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실로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 또한 갖고 있다. 주님이 오실날이 가까울수록 불신 중조와 이기심이 더욱 만연해갈 것인즉,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칭찬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나는 1999년 7월 하기 수련회로 기도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난 후,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였고 2000년도 신학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기도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앞서 다시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 하고 있었을때, 정말로 정신이 몽롱해졌다. 정말 마치 꿈과 같았는데, 성경말씀의 내용이, 특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어떻게 재림하실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내 머리속에서 사진처럼 스쳐지나갔다. 그 때,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체험 할 수 있었으며,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생애 있어서 성경 말씀이 사진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갔던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위해 나에게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그 체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한다는 다짐을 만들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학도로써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질 그릇과 같은 사람인 것을 믿게하는 원동력임을 믿는다.